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08-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4 교육인식조사] 학력 차별 인식 및 교육자 자질 평가

2024. 12. 04.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대학 서열화와 학력 차별 인식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 심각하다 87%

2021년 이후 '심각하다'는 인식 80% 중후반대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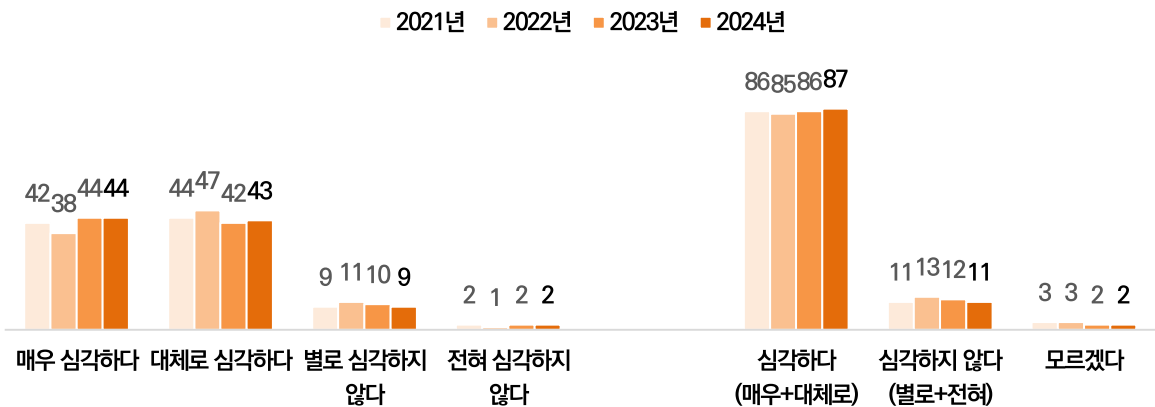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10명 중 4명 이상(44%)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최소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은 2년 연속 44%로 높은 수준이다.

세대나 성별, 학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는 데 80% 이상이 동의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50대(51%), 비수도권 4년제 대학 학력(52%), 진보층(58%), 미성년 자녀 있는 사람(52%)은 대학 서열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 심각하다 87%

2021년 이후 '심각하다'는 인식 80% 중후반대를 유지

(단위 : %)



질문: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29 ~ 11. 01 // 2022. 10. 28 ~ 31 // 2023. 10. 13 ~ 16 // 2024. 10. 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과 관계없이 대학 서열화 심각하다는 인식 공유
50대, 비수도권 4년제 학력, 진보층 등에서는 절반 이상이 대학 서열화가 ‘매우 심각’ 하다고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전체	(1,000)	44	43	9	2	87	11	2
성별								
남자	(493)	44	41	11	3	85	13	2
여자	(507)	44	45	8	1	89	9	2
연령								
18-29세	(157)	48	38	7	1	87	8	6
30대	(149)	44	40	10	5	84	15	2
40대	(176)	48	38	10	1	87	11	2
50대	(195)	51	39	8	3	90	10	0
60대	(175)	39	49	7	2	88	10	2
70세 이상	(148)	31	55	14	1	85	14	0
학력								
고졸 이하	(455)	39	47	9	2	87	11	2
대재 이상	(545)	48	39	10	2	87	11	2
재학졸업대학								
수도권 4년제	(214)	46	40	11	3	85	14	0
비수도권 4년제	(216)	52	37	8	0	90	8	2
전문대	(100)	41	46	8	4	86	12	1
대학 진학하지 않음	(455)	39	47	9	2	87	11	2
이념성향								
진보층	(297)	58	36	5	1	94	6	1
중도층	(329)	39	47	9	2	86	11	3
보수층	(345)	37	46	13	3	83	16	1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184)	52	36	10	2	88	12	1
없음	(816)	42	44	9	2	87	11	2

질문: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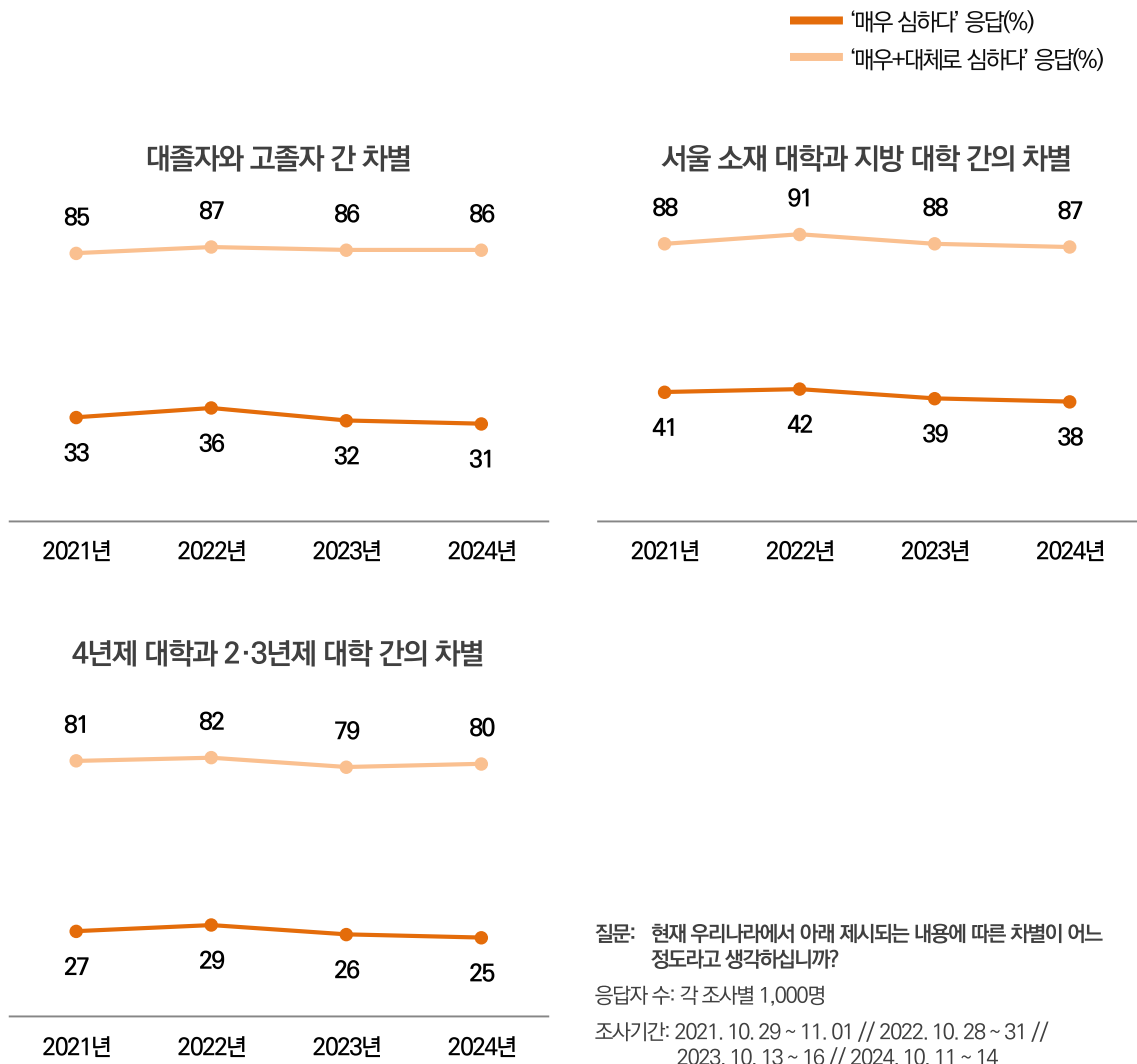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11 ~ 14

10명 중 8명 이상, 대졸자-고졸자, 서울 소재 대학-지방 대학, 4년제 대학-2·3년제 대학 간 차별 심하다는 인식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차별,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차별,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 간의 차별 또한 심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대졸자와 고졸자 간 차별이 심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86%,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차별이 심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87%이다.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 간의 차별이 심하다는 사람도 80%이다. 학력 및 학교급간 차별을 확인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차별이 심하다는 인식은 8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차별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졸 이하인 사람이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보다 차별이 심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10명 중 8명 이상, 대졸자-고졸자, 서울 소재 대학-지방 대학, 4년제 대학-2·3년제 대학 간 차별 심하다는 인식
특히 서울 소재 대학-지방 대학 간 차별 매우 심하다는 인식은 40%대



고졸 이하 학력인 사람은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에 비해
대졸자-고졸자 간 차별, 서울 소재 대학-지방 대학 간 차별 심하다는 인식 더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차별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차별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 간의 차별	
		매우 심하다	매우 + 대체로 심하다	매우 심하다	매우 + 대체로 심하다	매우 심하다	매우 + 대체로 심하다
전체	(1,000)	31	86	38	87	25	80
성별							
남자	(493)	31	84	38	85	26	81
여자	(507)	31	88	38	90	25	79
연령							
18~29세	(157)	27	82	34	77	23	71
30대	(149)	29	80	36	77	21	73
40대	(176)	34	84	44	90	30	81
50대	(195)	39	89	43	93	32	82
60대	(175)	27	89	34	93	21	88
70세 이상	(148)	31	92	36	92	24	82
학력							
고졸 이하	(455)	36	91	41	92	27	82
대재 이상	(545)	28	82	36	83	24	78
재학·졸업대학							
수도권 4년제	(214)	25	85	32	84	24	82
비수도권 4년제	(216)	31	81	42	84	27	75
전문대	(100)	23	80	28	81	15	73
대학 진학하지 않음	(455)	36	91	41	92	27	82
이념성향							
진보층	(297)	41	92	45	91	33	83
중도층	(329)	29	85	37	86	26	79
보수층	(345)	25	82	32	85	18	78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184)	40	86	45	89	31	81
없음	(816)	29	86	36	87	24	79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래 제시되는 내용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11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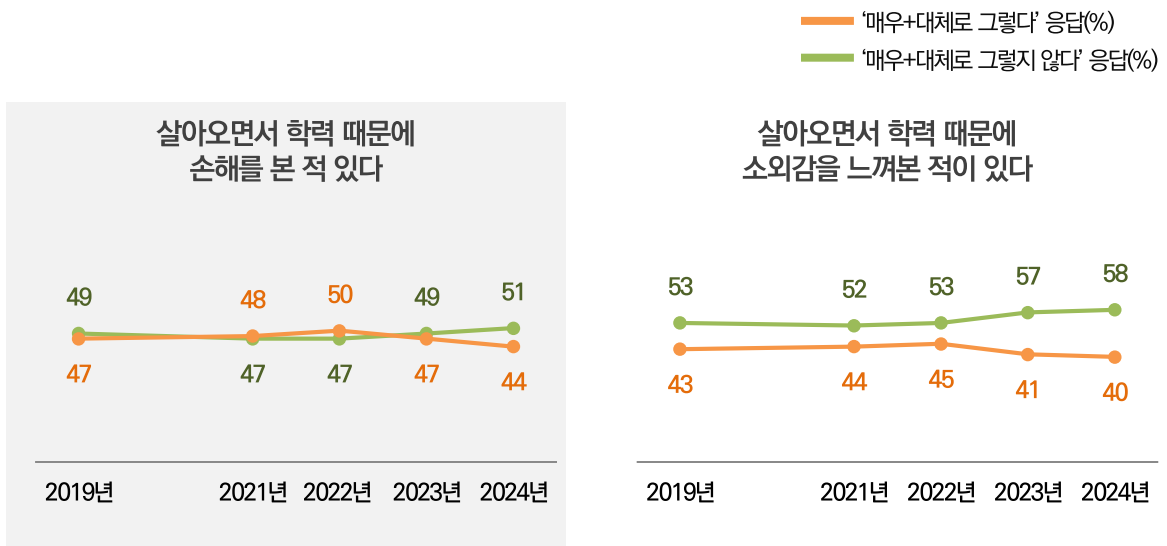
2 학력이 삶에 미치는 영향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 본 적 있다 44%, 소외감 느껴본 적 있다 40%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44%이다. 2022년 50%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3%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다만 여전히 고졸 이하(53%), 50대(52%)에서는 학력 때문에 살면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반을 웃돈다. 대재 이상, 수도권 4년제 학력인 사람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학력 때문에 살면서 손해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54%가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답한 것도 눈에 띈다.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40%이다. 지난해(41%)와는 비슷한 수준이고, 2022년(45%)에 비하면 5%포인트가 낮아졌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49%), 50대(50%)는 절반 가량이 학력 때문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 반면 대재 이상에서는 64%,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은 59%가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 경험이 없다. 수도권 4년제 학력인 사람 중에서도 70%는 학력 때문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껴본 경험이 없다.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 본 적 있다 44%, 소외감 느껴본 적 있다 40%



질문: 다음의 문항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각 항목의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19. 8. 9 ~ 8. 12 // 2021. 10. 29 ~ 11. 01 // 2022. 10. 28 ~ 10. 31 // 2023. 10. 13 ~ 16 // 2024. 10. 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나보다 학력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 느낀 적 있다 38%

나보다 학력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 느낀 적이 있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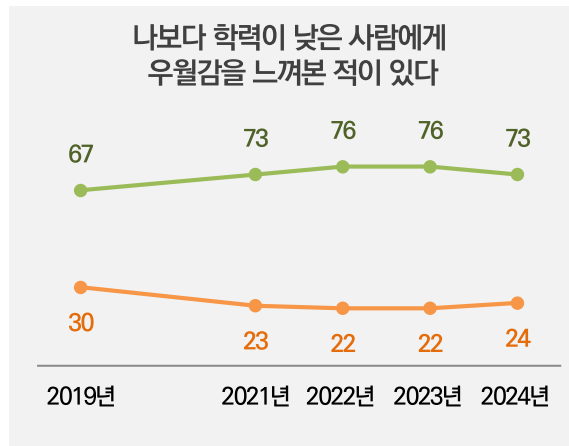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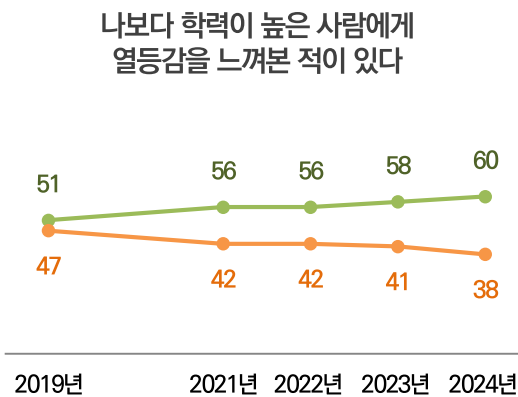
‘나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 있다’는 사람은 38%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포인트, 2019년(47%)과 비교하면 9%포인트가 낮아졌다. 앞선 결과들과는 달리, 학력에 따른 경험 차이는 크지 않으며(고졸 이하 38%, 대재 이상 39%), 학교급간 차이도 없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중 50%가 학력으로 인한 열등감을 느껴 본 경험이 있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36%)대비 높다.

반대로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껴본 적 있다’는 사람은 24%이다. 지난해(22%)와 큰 차이 없이, 4명 중 1명 정도가 학력으로 인한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우월감을 경험한 사람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도권 4년제 학력(33%), 비수도권 4년제 학력(32%)인 사람이 전문대 학력(15%), 고졸 이하 학력(17%)인 사람보다 학력으로 인한 우월감을 느껴본 적 있다는 응답이 두 배 가량 높다.

나보다 학력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 느낀 적 있다 38%

나보다 학력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 느낀 적이 있다 24%

— ‘매우+대체로 그렇다’ 응답(%)
— ‘매우+대체로 그렇지 않다’ 응답(%)



질문: 다음의 문항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각 항목의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19. 8. 9~8. 12 // 2021. 10. 29~11. 01 // 2022. 10. 28~10. 31 // 2023. 10. 13~16 // 2024. 10.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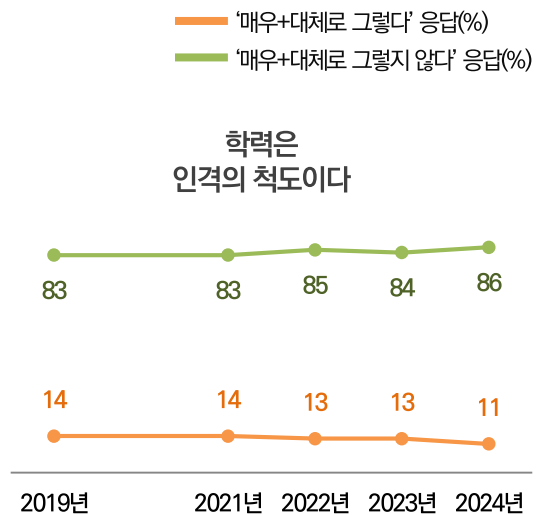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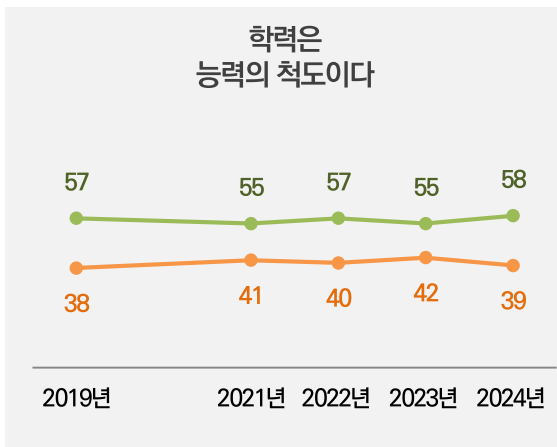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학력은 능력의 척도’, 58%가 동의하지 않아 ‘학력은 인격의 척도’, 11%만이 동의

‘학력은 능력의 척도’ 라는 진술에는 39%가 동의하며 58%는 동의하지 않는다. 2019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학력을 능력의 척도로 보는 사람은 40대에서 50%에 이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또한 49%가 학력을 능력의 척도라고 인정한다.

반면 ‘학력은 인격의 척도’ 라는 진술에는 10명 중 8~9명(86%)이 동의하지 않는다. 2019년 이후, 학력을 인격의 척도로 보는 사람은 10% 초반 수준에 머문다. 학력을 능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지만, 학력으로 인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인식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능력의 척도’, 58%가 동의하지 않아 ‘학력은 인격의 척도’, 11%만이 동의



질문: 다음의 문항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각 항목의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19. 8. 9 ~ 8. 12 // 2021. 10. 29 ~ 11. 01 // 2022. 10. 28 ~ 10. 31 // 2023. 10. 13 ~ 16 // 2024. 10. 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학력으로 인한 손해와 소외 경험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 다만 학력 수준에 따른 손해와 소외 경험의 차이가 여전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학력 차별이 실제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고학력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서 학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점은, 자녀 교육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졸 이하인 사람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살아오면서 학력때문에 손해 보거나 소외감 느껴본 적 있다’ 인식 미성년 자녀 있는 사람 중 49%가 ‘학력은 능력의 척도’라는 데 공감

(단위 : %)

사례수 (명)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나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학력은 능력의 척도이다		학력은 인격의 척도이다	
	그렇다 (매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별 로+전혀)		그렇다 (매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별 로+전혀)		그렇다 (매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별 로+전혀)	
전체 (1,000)	44	51	40	58	38	60	24	73	39	58	11	86
성별												
남자 (493)	45	51	40	57	37	60	24	73	39	58	13	84
여자 (507)	44	52	40	58	40	59	24	74	40	58	10	88
연령												
18-29세 (157)	26	60	29	61	35	57	26	67	36	54	10	82
30대 (149)	44	52	36	61	44	55	28	69	44	54	15	80
40대 (176)	50	47	40	60	42	57	25	73	50	49	13	86
50대 (195)	52	46	50	49	43	57	20	77	37	62	11	88
60대 (175)	47	51	44	56	30	69	20	79	32	67	8	92
70세 이상 (148)	44	55	39	61	36	63	25	73	37	61	12	87
학력												
고졸 이하 (455)	53	44	49	50	38	61	17	80	36	63	11	87
대재 이상 (545)	36	58	33	64	39	59	29	68	42	54	12	85
재학졸업 대학												
수도권 4년제 (214)	31	65	28	70	37	62	33	65	41	56	10	88
비수도권 4년제 (216)	39	55	33	64	42	56	32	65	47	49	13	85
전문대 (100)	38	51	41	52	38	59	15	80	37	57	14	82
대학 진학하지 않음 (455)	53	44	49	50	38	61	17	80	36	63	11	87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184)	54	43	49	50	50	50	31	68	49	50	15	84
없음 (816)	42	53	38	59	36	62	22	75	37	60	11	86
대학 진학 필요성												
필요하다 (687)	48	49	44	55	43	56	26	72	44	54	11	87
필요하지 않다 (293)	36	60	31	66	28	70	19	79	29	69	12	85

질문: 다음의 문항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각 항목의 '모르겠다' 응답은 보여주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11 ~ 14

3 교육자의 역량 및 자질 평가

초·중·고 교사 역량 및 자질 신뢰한다 61%, 지난해 대비 6%포인트 하락 대학 교수 역량 및 자질 신뢰한다는 평가도 지난해 대비 4%포인트 하락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 교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평가는 지난해까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교육자의 역량과 자질을 신뢰한다는 평가가 지난해 대비 하락하였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역량과 자질을 신뢰하는 사람은 61%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사람(36%)보다는 많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6%포인트가 감소했다. 특히 30대(64% → 48%, 16%포인트 감소)와 40대(65% → 54%, 11%포인트 감소)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64% → 60%, 4%포인트 감소)보다는 없는 사람(68% → 61%, 7%포인트 감소)의 신뢰도 하락 폭이 좀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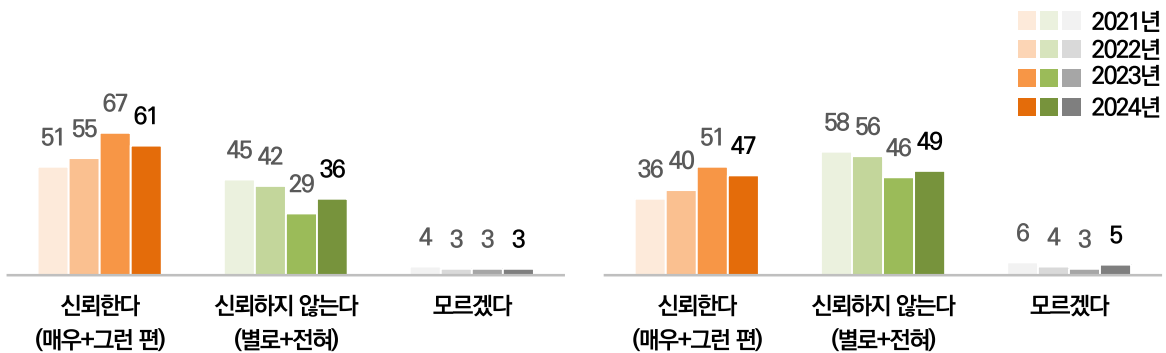
대학 교수의 역량 및 자질을 신뢰한다는 사람은 47%로 지난해 대비 4%포인트 낮아졌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49%로, 신뢰하는 사람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특히 40대(50% → 39%, 11%포인트 감소)에서 다른 연령대 대비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

초·중·고 교사 역량 및 자질 신뢰한다 61%, 지난해 대비 6%포인트 하락 대학 교수 역량 및 자질 신뢰한다는 평가도 지난해 대비 4%포인트 하락

(단위 :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역량 및 자질을...

대학 교수의 역량 및 자질을...



질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의 역량 및 자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29 ~ 11.01 // 2022. 10. 28 ~ 31 // 2023. 10. 13 ~ 16 // 2024. 10. 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초·중·고 교사 역량 및 자질 신뢰도, 3·40대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대학 교수 역량 및 자질 신뢰도 또한 40대, 중도층에서 10%포인트 가량 낮아져

(단위 :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역량 및 자질을 신뢰한다			대학 교수의 역량 및 자질을 신뢰한다		
	2023년	2024년	차이 (24년-23년)	2023년	2024년	차이 (24년-23년)
전체	67	61	-6%p	51	47	-4%p
성별						
남자	68	61	-7%p	49	44	-5%p
여자	67	61	-6%p	53	49	-4%p
연령						
18-29세	58	54	-4%p	53	54	+1%p
30대	64	48	-16%p	42	39	-3%p
40대	65	54	-11%p	50	39	-11%p
50대	69	62	-7%p	51	45	-6%p
60세 이상	74	-	-	56	-	-
60대	-	71	-	-	50	-
70세 이상	-	76	-	-	56	-
학력						
고졸 이하	72	68	-4%p	54	49	-5%p
대재 이상	63	55	-8%p	49	46	-3%p
이념성향						
진보층	74	65	-9%p	54	48	-6%p
중도층	65	59	-6%p	52	42	-10%p
보수층	66	61	-5%p	50	51	+1%p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64	60	-4%p	43	46	+3%p
없음	68	61	-7%p	53	47	-6%p

질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의 역량 및 자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고: '매우 신뢰한다' + '신뢰하는 편이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10. 13 ~ 16 // 2024. 10. 11 ~ 14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9월 기준 약 95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4,373명, 조사참여 1,35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9%, 참여대비 73.9%)
조사일시	• 2024년 10월 11일 ~ 10월 1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